

<http://doi.org/10.5253/kpac.2026.57.4>

## 石北 申光洙의 『西關錄』 연구

최이호\*

### 차 례

1. 서론
2. 『서관록』의 배경과 구성
  - 1) 배경
  - 2) 구성
3. 『서관록』의 시 세계
  - 1) 여정에서 느낀 고독과 비애
  - 2)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3) 역사에 대한 회고
  - 4) 풍류 의식
4. 결론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신광수의 『西關錄』에 나타난 시 세계를 고찰한 것이다. 『서관록』은 1760년과 1761년, 신광수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관서 지역을 유람하면서 견문과 감회를 시로 기록한 작품집으로, 『石北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신광수는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남인 계열의 문인이었기에, 젊은 시절 文名을 얻었으나 평생 가난에 허덕였다. 이러한 가난은 그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조건이었으며, 그의 문학 또한 대부분 이 경제적 현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서관록』은 가난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노력이 빚어낸 산물로, 몰락한 양반으로서의 자기 비애와 삶의 고단함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 그의 여정은 단순한 유람이라기보다 생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연구원

계형 유랑에 가까웠기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깊이 있는 정서로 표출되었다. 아울러 그가 들른 역사적 유적지들이 지닌 비극적 서사는 시인의 처지와 비슷하였기에, 이러한 감정은 그의 작품에 깊숙이 투영되었다.

반면 평양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비애와 고독이 사라지고, 예술과 풍류를 즐기는 밝고 긍정적인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평양이 명승지와 향락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험과 풍류는 이후 蔡濟恭을 위해 지은 〈關西樂府〉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핵심어** : 申光洙, 西關錄, 風流, 비애, 關西樂府

## 1. 서론

石北 申光洙(1712~1775)는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대표적 시인이다. 그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남인 집안 출신인 탓에 벼슬길에 나아가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거의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다. 『西關錄』은 신광수가 생활 자금을 구하기 위해 1760년과 1761년 두 차례 관서 지방을 유람하며 느낀 것을 기록한 시집이다.<sup>1)</sup> 『石北集』 권2에 있고, 모두 70여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서관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 간혹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이은주<sup>2)</sup>는 신광수의 대표작인 〈關西樂府〉가 향락적이고 몽환적인 데 비해, 『서관록』은 주로 자신의 소외감을 투영한 제재와 감정들로 집중되어 있다거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주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신장섭<sup>3)</sup>은 신광수의 출

1) 생활 자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서 유람을 떠난다는 말은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으나, 『石北集』 卷16 〈年記〉에 “庚辰, 遊關西, 觀沸流溟江等諸勝. 辛巳, 復游貳江.”이라고 한 구절의 ‘遊’ 자에 근거하여 신광수가 관서 지방으로 떠난 것을 ‘유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단순히 놀이 성격의 유람이 아니라 생계형 유랑에 가까웠음을 밝힌다.

2) 이은주, 「申光洙의 〈關西樂府〉 小考-“風流”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3) 신장섭, 「出仕 전까지 石北의 삶과 시의 면모」, 『어문논집』 41집, 중앙어문학회, 2009.

仕 이전의 시들을 연구하면서, 몰락 양반의 빈궁과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읊은 작품으로 평가하였다. 이기현<sup>4)</sup>은 신광수의 문학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신광수의 객지 생활에는 나그네의 旅情과 客懷를 읊은 시가 많아 대부분 고달프고 외로운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신광수의 문학 연구는 1959년 이가원의 「석북 문학 연구」<sup>5)</sup>가 나오고, 1973년 신석초의 석북 시집에 대한 번역서<sup>6)</sup>가 나온 이후로 활발해져서, 『서관록』과 비슷한 종류인 『驪江錄』, 『耽羅錄』, 〈관서악부〉 등처럼 지역별로 묶인 시집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sup>7)</sup> 하지만 『서관록』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본고는 『서관록』의 시 세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관록』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한 다음, 『서관록』에 실린 시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재구성하여 각각의 특징을 면밀하게 밝힐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관록』에 실린 시들을 주제별로 세세히 분석하여 『서관록』 시의 특징을 밝힐 것이다.

4)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서, 1996.

5) 이가원, 「석북문학연구」, 『동방학지』 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6) 신석초, 『石北詩集 紫霞詩集』, 명문당, 2003.

7) 권경록, 「18세기 지식인의 공간인식과 심상지리-申光洙의 『驪江錄』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이향배, 「石北 申光洙의 『驪江錄』 연구」, 『한문학논집』 67집, 근역한문학회, 2004.

박용만, 「신광수(申光洙)의 『담라록(耽羅錄)』에 나타난 제주에 대한 인식과 정서」, 『담라문화』 66호, 담라문화연구원, 2021.

부영근,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담라록(耽羅錄)』 고찰(考察)」, 『영주어문학회』 8집, 영주어문, 2004.

신장섭, 「〈관서악부(關西樂府)〉를 통해 본 석북(石北)의 역사 인식 고찰」, 『어문연구』 3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신장섭, 「石北 申光洙의 〈關西樂府〉 규제 고찰(1)」, 『우리문학연구』 19집, 우리문학회, 2006.

## 2. 『西關錄』의 배경과 구성

### 1) 배경

申光洙(1712~1775)는 본관은 高靈, 자는 聖淵, 호는 石北 또는 五嶽山人이다. 1712년 한양의 외가에서 申澮(?~1767)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신호는 총명하고 박식하여 史學에 조예가 깊었으나, 일찌감치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당시 老小의 당쟁이 심화되어 노론은 소론과 남인을 배척하였다. 이런 정치적 탄압으로 남인 계열인 신광수 집안은 가세가 점차 기울어, 그의 나이 13세인 1724년에 충청도 韓山으로 낙향하였다.

신광수는 5세 때부터 글을 지었고, 기억력이 좋았다. 약관에는 아우 光淵과 古文辭를 부지런히 공부하였는데, 선배 李德胄(1696~1751)는 그의 시를 보고 “天才이다. 동방 사람이 아니다.”라고 칭찬하였고, 姜樸(1690~1742)은 그의 시를 보고 크게 탄복하여 자신이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sup>8)</sup> 35세 되던 1746년 9월 漢城試에서 속칭 〈關山戎馬〉로 2등을 차지하였는데, 이 작품이 歌詩로 널리 불리며 크게 文名을 떨쳤고, 그해 10월 陞補試에서는 장원을 차지하였다. 이 무렵 신광수의 친구인 蔡濟恭(1720~1799)이 그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當世知名士 오늘날 내가 아는 명사 중에  
無如申聖淵 신성연만 한 이 찾아볼 수 없네  
敝裘多歲月 오랜 세월 헤진 갓옷 입고 지내다  
匹馬去晨昏 필마 타고 부모님을 뵈러 갔어라  
詩不今人似 시는 지금 사람 같지 않고  
交能古道全 교제는 옛 도를 잘 간직하였지<sup>9)</sup>

8) 『石北集』 卷16 附錄 〈行狀〉

9) 蔡濟恭, 『樊巖集』 卷4 〈憶申聖淵〉

체제공은 젊은 나이에 문과에 합격하여 淸要職의 탄탄대로를 달리며 수많은 名士를 만났음에도 그가 인정한 사람은 오직 신광수 한 사람뿐이었다. 그만큼 신광수의 文才는 출중하였다. 그 후 신광수는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계속 낙방하다가, 39세인 1750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사람들이 “그대의 문장이 너무 뛰어나니 어찌 수준을 낮추어 급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웃으며 “내 공부는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끝내 고치지 않았다.<sup>10)</sup> 그가 그동안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던 까닭은 개성적인 문학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당쟁 때문이었다.<sup>11)</sup> 그 후 더욱 곤궁해져서 마침내 과거에 뜻을 접고 다시는 응시하지 않았다. 이후로 신광수는 시골에 칩거하였는데 생활이 더욱 궁핍해져서 가산과 노복들을 모두 청산하고 땅을 빌려 손수 농사를 지었다.<sup>12)</sup>

吾年初四十 내 나이 이제 마흔  
 海岸作農人 바닷가의 농부 되었네  
 世路行逾畏 세상 길은 갈수록 두렵기만 하고  
 詩家老益貧 시인은 늙을수록 가난하기만 하네<sup>13)</sup>

신광수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그의 삶은 더욱 곤궁하여 직접 바닷가에 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시인으로 자부하여 문장을 짓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또 자신과 형제들의 빈궁한 삶을 문학에 열중한 대가라고 슬퍼하기도 하였다.

江海生涯兩弟貧 강해에 사는 가난한 두 아우  
 文章誤盡我家人 문장이 우리 집안사람들 다 그르쳤네<sup>14)</sup>

10) 『石北集』 卷16 附錄 〈行狀〉

11) 이기현(1996), 25면.

12) 신장섭(2009), 190면.

13) 『石北集』 卷1 〈寄景休〉

14) 『石北集』 卷3 〈旅懷八詠 其六〉

이렇게 신광수는 늘 가난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지만, 문학을 숙명처럼 여겨 부지런히 연마하였다. 그래서 이가원은,

“石北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가난과 결투하는 도중에 所産된 문학이 거의 그것인 만큼 그의 문학과 가난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sup>15)</sup>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49세 되던 1760년 11월 관서로 유람을 떠나게 되었다.

行人明日發 내일 길손은 떠나려는데  
 終夜雪何深 밤새 눈은 얼마나 쌓일려나  
 漸近窮陰月 점점 선달이 가까이 다가오니  
 逾添萬里心 고향 생각이 더해만 가누나  
 長途慙白髮 먼 길 가려니 백발이 부끄러운데  
 何處問黃金 어디에서 황금을 물을거나  
 前路應無酒 앞길에는 응당 술도 없을 터  
 寒愁恐不禁 추위 걱정 못 견딜 듯하네<sup>16)</sup>

신광수가 관서로 유람하는 목적, 즉 『서관록』을 짓게 된 배경이 드러난 부분이다. 黃金은 곧 돈이나 재물을 말한다.<sup>17)</sup> 백발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부끄

15) 이가원(1969), 153면.

16) 『石北集』 卷2 〈又得深字〉

17) ‘황금은 신광수의 『石北集』 시에서 돈이나 재물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

卷1 〈送權國珍歌〉：“생활이 궁핍한 것은 황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니, 각박한 풍속이 되레 백발을 재촉하누나.[窮途只爲黃金盡, 薄俗還教白髮忙]”

卷3 〈黃生告歸求詩 聊次前韻 又用別韻 贈其行〉：“황금 떨어지면 사귀는 태도를 알 수 있으니, 흰 눈 맞으며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네.[黃金薄落知交態, 白雪蕭條返故鄉.]”

卷8 〈而憲謀得子錢 輸官租 敗歸吟贈〉：“황금을 빌리려고 서울에 왔다가, 황금은 빌리기 어렵고 근심만 안고 돌아가네.[欲借黃金秦地來, 黃金難借借愁廻.]”

卷10 〈關西樂府 其百七〉：“황금 많은 곳에 더는 근심 없으니, 백년 인생살이 마음껏 놀아야지.[黃金多處更無愁, 百歲人生盡意遊.]”

러운 일인데, 지인들에게 돈을 구하러 가는 것은 더욱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일찌감치 文名이 났음에도 세상과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그의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광수는 세밑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sup>18)</sup>

## 2) 구성

『西關錄』은 신광수가 49세 되던 1760년(영조36)과 50세가 되던 1761년에 두 차례 관서 지방을 유람하면서 느끼거나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시집으로, 그의 문집인 『石北集』 卷2에 실려 있다. 총 52제 72수가 실려 있는데, 이중 신광수의 아우 申光淵(1715~1778)과 申光河(1729~1796)의 시가 각각 한 수씩 들어 있다. 西關은 關西와 같은 말로, 황해도와 평안도를 가리킨다. 『석북집』에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보인다.

『석북집』 〈年記〉에 의하면, 신광수는 경진년(1760)에 관서를 유람하여 沸流江과 溟江 등 여러 명승지를 구경하고, 신사년(1761)에 다시 패강을 유람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이 기록과 함께 『서관록』에 실린 장소와 날짜 등을 고려하여 관서 지방의 여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8) 신광수가 관서로 유람을 떠나기 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관서 유람을 다녀온 후 1761년 겨울부터 寧陵 參奉, 司饔院 奉事, 繕工監 奉事 등을 역임한 1765년에 庇仁 縣監 睦萬中에게 보낸 시와 丁翰祖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1765년 당시와 그 이전의 경제적 상황도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신광수가 여름 내내 종일 굶주리는 날이 많다고 전하자, 목만중이 그에게 20錢을 보내왔다. 신광수는 이 돈으로 10전은 쌀을 사 오게 하고, 5전은 빨감을 사 오게 하였다. 그날 먹을 양식이 없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참으로 기쁘다고 정범조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石北集』 卷10 〈謝柳臺太守二十錢歌〉, 卷11 〈與法正及俞秀五〉

19) 『石北集』 卷16 〈年記〉：“庚辰，遊關西，觀沸流溟江等諸勝。辛巳，復游溟江。”

## 「표1」 관서 지방 여정

## 1차 유람

시간	장소	관련 시	지역/ 시의 수	특징
1760년 11월 4 일 <sup>20)</sup>	한양 집 추정	① <十一月辛巳初四日夜~西字 共賦(附兩弟詩)>, ② <又賦情 字>, ③ <又賦樓字>, ④ <又得 深字> 2수	한양/5수	※ 아우의 시 2수 가 수록 ※ 가족에 대한 그 리움과 비애를 읊은 시가 많음
	개성 초입	⑤ <馬上望松都>	개성/6수	※ 회고시가 많음
	탁타교	⑥ <橐駝橋>		
	남루	⑦ <南樓月夜>		
	만월대	⑧ <滿月臺> 2수		
	선죽교	⑨ <善竹橋>		
	청석골	⑩ <靑石洞>	금천/2수	※ 회고시와 풍속 을 읊은 시가 있음
	금천	⑪ <金川店夜聞琵琶>, ⑫ <金 川曉發>		
	저탄	⑬ <滌灘>	평산/8수	※ 가족을 그리워 한 시가 많음
	평산	⑭ <平山道中>		
총수산	⑮ <葱秀月夜憶家諸作> 6수			
검수	⑯ <劍水>	봉산/5수	※ 회고시가 많음	
동선령	⑰ <洞仙嶺>			
동선관	⑱ <洞仙關>			
봉산	⑲ <贈鳳山日者劉雲泰> 2수			
황주	⑳ <黃州>, ㉑ <黃州夜發> 2 수	황주/3수	※ 비애를 읊은 시 가 많음	

20) 이 기록과 관련된 시의 제목은 “11월 4일 【신사년(1761)】 밤에 문초가 서천에서 전송하  
기 위해 찾아왔기에 이어 ‘서’자를 뽑아 함께 읊다[十一月【辛巳】 初四日夜 文初來自西  
川送行 仍拈西字共賦]”라고 되어 있는데, 『崇文聯芳集』에 이가원이 오류를 수정하면서 기  
록한 글에는 “원본에는 경진년(1760) 11월 내가 서쪽으로 가려 할 때 4일에 문초가 西林  
에서 전송하러 찾아왔기에 밤에 ‘西’자 운을 뽑아 형제 세 사람이 함께 읊다.”라고 되어 있  
다. 또 <年記> 에 1761년 겨울에 여주의 寧陵 參奉으로 부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출발한  
해는 1760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우가 서천

시간	장소	관련 시	지역/ 시의 수	특징
	평양 초입	㉒ <望平陽>	평양/11수	※ 풍류를 읊은 시가 많음
	장림	㉓ <長林>		
	부벽루	㉔ <浮碧樓 次三淵韻>		
	연광정	㉕ <練光亭 贈劍舞妓秋江月>, ㉖ <贈妓>, ㉗ <別溟江>, ㉘ <贈成川客>, ㉙ <練光亭 留贈溟江妓> 2수, ㉚ <又贈陽臺春>		
	대동강	㉛ <渡溟江>		
	평산	㉜ <與韓督郵~夜坐有憶> 2수	평산/2수	
	구월산 초입	㉝ <馬上望九月山>	문화/1수	
	장연	㉞ <長淵道中>, ㉟ <自長淵向海州>	장연/2수	
1761년 1월 15 일	해주	㊱ <上元日海州道中> 2수 ㊲ <望首陽山>, ㊳ <過海州悼舊方伯>, ㊴ <上元登海州南樓> 2수	해주/9수	※ 명절 풍속과 가족에 대한 시가 많음
	해주	㊵ <曉發海州>, ㊶ <海州道中>		

\* 동그라미 안의 번호는 『서관록』에 실린 시의 배열순서임.

### 2차 유람

시간	장소	관련 시	지역/ 시의 수	특징
1761년 3월	한양에서 평양 가는 도중	<道中>	1수	권1에 수록

에서 올라왔다는 기록과 해주 도중에 지은 시에 “쓸쓸히 홀로 한양으로 돌아가네.”라는 구절로 볼 때, 출발지와 도착지는 모두 한양으로 보인다.

시간	장소	관련 시	지역/ 시의 수	특징
1761년 가을	장경문	㉔ 〈出長慶門〉	평양/1수	'再到浪上' 題註가 있음
	두릉탄	㉓ 〈雨渡杜陵灘〉	1수	
	만류제	㉒ 〈萬柳堤值雨〉	강동/1수	
	강선루	㉑ 〈降仙樓〉 2수, ㉐ 〈泛舟〉, ㉑ 〈紇骨城〉, ㉒ 〈別降仙樓〉	성천/5수	※풍류를 읊은 시가 많음
	열과정	㉑ 〈閣波亭〉	강동/1수	
	대동강	㉑ 〈舟下平壤〉	평양/8수	※풍류를 읊은 시가 많음
	부벽루	㉑ 〈贈義州妓梨花春〉 4수		
		㉒ 〈寄黃載之〉 2수		

위의 여정에서 알 수 있듯, 신광수의 관서 지방 1차 유람은 1760년 11월 5일 한양에서 출발하여 송도-금천-평산-봉산-황주-평양-평산-장연을 거쳐 1761년 1월 15일 海州 南樓에 올랐고 1월 16일 해주에서 출발해 한양으로 돌아왔다.

1차 유람에서 성천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sup>21)</sup> 2차 유람은 1761년 3월 한양에서 출발하여 평양에서 몇 개월 머물다 그해 가을에 杜陵灘과 萬柳堤를 거쳐 성천의 降仙樓와 紇骨城을 구경하고 강동의 閣波亭을 거쳐 다시 평양에 왔다가 귀가하였다. 이후 신광수는 시골집으로 가서 머물다 11월 11일 寧陵 參奉에 제수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양에서 지은 시가 가장 많은데 평양의 명승과 향락에 흠뻑 빠져서이고, 1차 유람보다 2차 유람에서 지은 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1차 유람과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서관록』에 실린 시의 배열을 보면, 신광수의 여정과 맞지 않는 것이 더러 보인다. 예를 들면 1차 유람에서 금천에서 평산을 거쳐 봉산으로 가는 길은 저탄을 건너 평산을 지나 충수산과 검수로 이어지는데, 충수산에서 지은 시(㉓)

21) 『石北集』 卷2 〈贈成川客〉 : “성천을 보지 못하고 말을 돌려 간다면, 사람 만나 서주에 왔다고 말하기 부끄러우리.[不見成川回馬去, 逢人羞說到西州.]”

가 저탄에서 지은 시(⑭) 앞에 있고, 평산 도중에 지은 시(⑬)가 봉산의 동선관에서 지은 시(⑰) 뒤에 있다. 또 평양에서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은 장연에서 해주를 거치는데, 장연에서 해주로 향하며 지은 시(⑳)가 해주에서 지은 시(㉕, ㉖, ㉗)보다 뒤에 있다. 또 신광수는 1월 16일 해주에서 출발하여 개성의 碧瀾江 가에서 묵었기 때문에 〈海州道中〉(㉙)<sup>22)</sup>의 시가 1차 유람 중 가장 뒤에 있어야 하는데, 해주에서 지은 시들과 뒤섞여 있다.

2차 유람 첫 번째 시인 〈道中〉은 『석북집』卷2 『서관록』에 있지 않고 권1에 실려 있다. 이 시를 신석초는 그의 번역서<sup>23)</sup>에서 〈出長慶門〉(㉚) 앞에 수록하고 주석에 “이듬해 신사년(1761)에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서울을 떠나 도중에서 지음.”이라고 기록하였다. 〈道中〉 시의 첫 부분은, “말을 타고 문을 나서니 3월도 저무는데, 西京까지는 長亭이 24개라네.”<sup>24)</sup>라고 하였고, 그 뒤에 실린 〈出長慶門〉 시의 첫 부분은, “西京의 3월 나그네가, 이제야 成川으로 향한다오.”<sup>25)</sup>라고 하였다. 서경은 평양을 말하는데, 『서관록』에 실린 ‘서경의 3월 나그네’라는 구절의 의미가 권1의 〈道中〉 시를 앞에 실음으로써 비로소 풀린다. 신석초가 번역할 당시, 1906년 간행된 16권 8책의 목활자본과 별도로 자체들이 수습한 신광수의 필사본 8책이 존재하였는데,<sup>26)</sup> 신석초가 이 필사본을 보고 〈道中〉 시를 『서관록』에 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이 시를 이곳에 수록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

이처럼 『서관록』은 시의 편차에 있어서 엄정하지 못하고 뒤섞여 있는 오류가 있다. 신광수는 『서관록』, 『여강록』, 『탐라록』 등 활동했던 지역별로 시집을 묶어 생전에 나름대로 정리해 두기도 했지만, 『서관록』의 경우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하는 바쁜 여정이어서 시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순차적으로 작품이

22) 『石北集』卷2 〈海州道中〉：“오늘 밤 碧瀾江 가에서 묵고, 쓸쓸히 홀로 한양으로 돌아가리.[今夜碧瀾江上宿, 蕭條獨向漢陽歸.]”

23) 신석초(2003), 233~234면.

24) 『石北集』卷1 〈道中〉：“騎馬出門三月暮, 西京二十四長亭.”

25) 『石北集』卷2 〈出長慶門〉：“西京三月客, 今始向成川.”

26) 장유승, 「石北 申光洙家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회』 78집, 대동한문학, 2024, 277면.

배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西關錄』의 시 세계

#### 1) 여정에서 느낀 고독과 비애

신광수는 일찌감치 크게 文名을 떨쳤고, 진사시에도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노론이 득세하던 시기에 남인 출신으로서 쉽게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거의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관서로 떠나기 전날인 1760년 11월 4일에, 아우들이 충청도 西川에서 형을 전송하기 위해 찾아왔다.

吾將溟西去 나는 패서로 떠나려 하는데  
 爾亦自松西 너는 또한 송서에서 왔구나  
 積雪關山遠 쌓인 눈 속에 관산은 멀고  
 他鄉骨肉迷 타향이라 골육의 정 아득하네  
 以貧爲此別 가난 때문에 이렇게 이별하니  
 臨發欲相啼 떠날 제 서로 울고 싶구나  
 除夕高堂上 선달그믐날 밤 부모님께서는  
 人情兩處齊 두 곳 생각하는 마음 같으시리<sup>27)</sup>

溟西는 평안도의 옛 이름이고, 松西는 충청도 西川의 지명으로 松江의 별칭이다. 신광수가 평안도로 떠나려 할 때 아우들이 그를 전송하기 위해 서천에서 찾아왔다. 겨울이라 눈이 쌓여 갈 길은 멀고 타향에서 만난 터라 골육의 정도 아득하다. 이들이 헤어지는 건 다름 아닌 가난 때문이다. 가난으로 이렇게 헤어지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새해를 앞둔 마지막 날 밤, 가난 때문에 흠어져 사는 아들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은 한없이 슬퍼하시리라.

27) 『石北集』 卷2 〈十一月 初四日夜 文初來自西川送行 仍拈西字共賦〉

이 시와 함께 실린 신광연의 시에도 “貧賤하면 되레 이별이 잦은 법, 이별의 정회에 다시 울고 싶네.”<sup>28)</sup>라고 하였고, 신광하의 시에도 “빈천의 이별을 탄식하지 마소, 吾道는 본래 떠돌아다니는 법이니.”<sup>29)</sup>라고 하였다. 즉, 빈천이 가족들을 갈라놓은 셈이 된 것이다.

신광수는 지인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생활 자금을 더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명승지를 유람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느긋하게 구경할 처지가 아니어서 밤새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霜曉黃州畫角聲 서리 내린 새벽 황주엔 화각 소리 들리는데  
 蕭蕭一騎出山城 쓸쓸하게 외론 말 타고 산성을 나선다오  
 平田直北中和野 평전에서 곧장 북쪽 중화 들로  
 月下無人盡夜行 인적 없는 달빛 아래 밤새 가노라<sup>30)</sup>

黃州에서 中和를 지나면 평양이 나온다. 평양은 1차 유람의 최종 목적지였으므로, 밤에 황주를 출발하여 서리 내린 새벽길을 갔다. 한겨울에다 동이 트기 전이었으니 사람들이 다닐 리 만무하였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 인적 없는 새벽길을 달빛에 의지하여 밤새 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유람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다음 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신광수는 유람 도중에 가난한 선비라는 이유로 낭패를 겪기도 하였다. 생활 자금을 도와주라는 시랑 李景祐(1705~?)의 편지를 얻어 평산부 관아에 전하려 하였는데, 아전이 그의 행색을 보고 문전에서 내쫓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자신의 신세를 보며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平山府吏叱門前 평산부의 아전이 문전에서 질책하여  
 李侍郎書不可傳 이 시랑의 편지 전할 길이 없구나

28) 『石北集』 卷2 〈附兩弟詩〉 : “貧賤還多別, 情懷復欲啼.”

29) 『石北集』 卷2 〈附兩弟詩〉 : “莫嗟貧賤別, 吾道本棲棲.”

30) 『石北集』 卷2 〈黃州夜發 其二〉

到處寒儒多敗意 어딜 가든 한미한 선비는 낭패가 많으니  
黃州路上笑無錢 황주 길 돈 없는 내 신세에 웃음만 나네<sup>31)</sup>

이렇듯 신흥수는 연줄이 닿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며 고달픈 여정을 이어나갔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떠난 관서 유람이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큰 소득 없이 관서 유람은 마무리되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해주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비애는 절정에 달했다.

雪中人去海州稀 눈 속에 해주 떠나는 사람 드문데  
南望千山但落暉 남쪽으로 산들 바라보니 낙조뿐  
今夜碧瀾江上宿 오늘 밤은 벽란강 가에서 묵고  
蕭條獨向漢陽歸 쓸쓸히 홀로 한양으로 돌아가리<sup>32)</sup>

1차 유람의 마지막은 해주를 떠나 개성의 벽란강 가에서 하루를 묵고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눈길을 밟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가는 행인도 드물고, 산에는 온통 낙조만 비칠 뿐이다. 뱃길을 따라 벽란강 가에서 묵고 다음날 한양으로 돌아가려니, 뜻을 이루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한없이 슬프기만 하였다.

이렇게 관서 유람은 단순히 유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 자금을 얻기 위한 유람에 가까웠으므로, 도중에 지은 시에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가 많이 나타나 있다. 임신양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몰락한 양반의 비애와 고독을 느낄 수 있다.

## 2)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유람에서 보통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은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특히 놀이 성격의 유람이 아니라 유배나 좌천, 또는 개인적인 일 때문

31) 『石北集』 卷2 〈平山道中〉

32) 『石北集』 卷2 〈海州道中〉

에 고달픈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신광수는 객지에 있을 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러 편의 시로 표현하였는데, 『서관록』에 수록된 〈葱秀月夜憶家諸作〉 뿐만 아니라 〈旅懷八詠〉 과 〈除夕雜詠〉 등은 한 편의 작품 속에서 首마다 가족의 대상을 달리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표2」 가족을 대상으로 읊은 시

詩題 순서	葱秀月夜憶家諸作 6수 (卷2)	旅懷八詠 8수 (卷3)	除夕雜詠 10수 (卷6)
첫째 수	雙親	兩親	親闈
둘째 수	兄弟	地下一人(妻)	兩弟
셋째 수	五男兒	癡兒(三女)	仲子
넷째 수	運兒(長男)	細君(妻)	三子
다섯째 수	穉女(三女)	孤墳(妻)	穉女(三女)
여섯째 수	二奴	兩弟	長女
일곱째 수		小妹(芙蓉堂)	妹(芙蓉堂)
여덟째 수		奴僕	仲女
아홉째 수			五子
열째 수			大兒與四子

3편의 작품에서 가장 먼저 공통으로 보이는 가족의 일원은 雙親, 兩親, 親闈로 표현된 ‘부모’이다. 신광수의 부친은 申濼이고, 모친은 계모 李氏이다. 생모 星山 李氏는 신광수의 나이 6세 때 사망하였다. 신광수의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다가, 부친이 韓山으로 내려오면서 韓山の 崇文洞에 터를 잡고 살았다.

雙親堂上雪盈頭    당상의 양친은 온통 머리가 새하얀데  
 送我關山歲暮游    세모에 관산 유람하는 날 전송하셨지  
 應見別來三五月    아마도 헤어진 뒤로 보름달을 보시며  
 念兒今夜宿何州    내 아이 오늘 밤 어디서 묵을까 걱정하시리<sup>33)</sup>

33) 『石北集』 卷2 〈葱秀月夜憶家諸作 其一〉

시의 전반부에서는 예전 자신을 전송하던 부모를 생각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자신을 걱정하실 부모를 떠올렸다. 당시 신광수의 나이가 49세였으므로, 부모는 70여 세였을 것이다. 모두 백발의 노인인데도 늙은 몸을 이끌고 추운 겨울 멀리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였다. 고생하러 떠나는 아들을 보며 눈물 흘렸을 부모를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이 큰데, 보름달을 보면서 자식을 걱정하실 부모를 떠올리자 더더욱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가족의 일원은 兄弟, 兩弟로 표현된 ‘형제’이다. 신광수는 3남 1녀 중 장남이고, 아우 申光淵과 申光河, 그리고 누이 芙蓉堂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 文名을 떨쳤는데, 이들 4명의 문집을 1975년 이가원이 『崇文聯芳集』으로 묶어 편찬하였다.

다음으로 5남 3녀의 자식들이다. 아들은 차례로 申禹相, 申履相, 申渭相, 申奭相, 申甫相이고, 딸은 李顯文, 韓公權, 韓錫堂에게 시집갔다. 이중 특히 걱정되었던 자식은 ‘釋女’와 ‘癡兒’로 표현된 막내딸이었다.

釋女伶僂獨在家 외로이 홀로 집에 있는 어린 딸  
自從無母倍憐爺 어미 죽은 뒤론 배나 아버 가여워했지  
歸時謂與羅裙着 집에 돌아갔을 때 비단 치마 입히면  
猶向隣兒拭淚誇 외려 이웃 아이에게 눈물 닦으며 자랑하리<sup>34)</sup>

당시 시집가기 전이었던 신광수의 어린 딸은 5남 3녀 중 막내인 데다 어미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생계를 위해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釋女’와 ‘無母’의 시어로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염려를 극진히 표현하였다. 또 다른 시에서도 ‘어미 없는 어린아이 아버지 돌아오길 기다리리.’<sup>35)</sup>라고 하였고, 아내를 위해 지은 祭文에도 ‘어린놈이 가장 가련하니, 의지할 데 없어 잘 우누나.’<sup>36)</sup>라고 하여 막내딸을 가장 많이 걱정하

34) 『石北集』 卷2 〈葱秀月夜憶家諸作 其五〉

35) 『石北集』 卷3 〈旅懷八詠 其三〉：“無母癡兒待父歸。”

36) 『石北集』 卷14 〈祭孀人文〉：“釋者最憐，無聊善啼。”

였다. 시의 후반부에는 이런 상상을 한다. 유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아버가 사 온 비단 치마를 입고 전혀 슬프지 않은 척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비단 치마에 반전을 주는 ‘猶’라는 시어와 슬픔을 애써 감추려는 ‘拭淚’의 시어가 슬픔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신광수의 부인 海南 尹氏는 관서로 유람을 떠나기 4년 전인 1756년 세상을 떠났다. 『서관록』의 시에는 부인에 대한 작품이 보이지 않지만, 〈旅懷八詠〉에서는 3편의 시에서 地下一人, 細君, 孤墳으로 표현하여 죽은 부인을 그리워 하였다.

특이한 것은 노복에 대한 시가 실려 있다는 점이다.

長亭不盡溟江西 패강 서쪽으로 장정이 끝이 없는데  
 去去思鄉夢亦迷 가고 가니 고향 생각 꿈에도 흐릿하네  
 唯與二奴長伴宿 오직 두 머슴과 늘 함께 잠들고  
 關山處處起聞鷄 관산 곳곳마다 일어나 닭 울음소리 듣네<sup>37)</sup>

길을 갈 때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떠나는 것이 보통인데, 신광수는 소기의 목적을 숙히 이루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런 그의 고달픈 유람에 동행한 사람은 가족이나 벗도 아닌 2명의 노복이었다. 그의 노복은 그의 조력자이자 길동무였다. 그래서 그는 노복을 함께 살아가는 동무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여 그들을 애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sup>38)</sup> 가족을 그리워한 시에 노복을 대상으로 한 시가 수록된 이유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특

37) 『石北集』 卷2 〈葱秀月夜 憶家諸作 其六〉

38) 이 외에도 노복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수록된 시는 다음과 같다.

『石北集』 卷8 〈旅懷八詠 其八〉 : “흉년이라 노복들은 죽는 일 빈번한데, 겨울 달밤에 조세 독촉하고 또 옥에 가두네. 그래도 주인이 과거 급제하길 기다리며, 만산 깊은 곳 두어 집에서 머무르누나.[荒年奴僕死亡稠, 凍月催租又見囚. 猶待主人登第去, 萬山深處數家留.]”

히 명절이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關路行人見月愁 관서 길의 길손은 달 보고 시름겨워  
 黃昏獨上郡城樓 황혼에 홀로 군의 성루에 올랐네  
 故園南望知何處 남쪽으로 고향 바라보니 어드메뇨  
 今夜蕭然宿海州 오늘 밤 쓸쓸히 해주에서 묵노라<sup>39)</sup>

1차 유람에서 마지막으로 시를 남긴 곳이 해주였는데, 이때가 정월 대보름이었다. 보름달이 뜬 명절날, 고향이 그리워 城樓에 올라 남쪽 고향을 바라보니, 고향은 아득히 멀어 보이지 않기에 쓸쓸한 마음을 안고 내려와 해주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는 달을 매개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sup>40)</sup> 특히 보름달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는 점과 둥근 얼굴과도 비슷한 점,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밤에 뜬 것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광수는 객지의 여정에서 가족과 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였다. 고향에 있는 가족은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렇기에 가족을 생각하며 지은 시에는 그의 진솔하고 애뜻한 마음이 잘 그려져 있다.

### 3) 역사에 대한 회고

신광수는 지나가다가 역사 유적이 있으면 회고시를 남겼다. 원래 『서관록』은 아우들이 신광수의 거처로 찾아와 주고받는 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여정은 松都를 바라보고 쓴 〈馬上望松都〉부터 시작된다. 송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대체로 시인들이 비슷하였던 것 같다. 화려하고 번성했던 고려의 수도가

39) 『石北集』 卷2 〈上元登海州南樓〉

40) 달을 보고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한 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卷2 〈葱秀月夜憶家諸作其二〉：“총수산 앞에 뜬 오늘 밤 달빛을, 고향의 형제들도 함께 보리라.[葱秀山前今夜色, 故園兄弟亦同看.]”

卷2 〈又賦情字〉：“어느 고을에서 보름달을 볼거나, 돌아오는 날 봄빛이 생기리라.[何州見月滿? 歸日恐春生.]”

황폐해진 모습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느꼈다. 여기에 신광수는 자신의 고달픈 삶이 더해져 한층 더 서글프고 쓸쓸한 송도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松都一望勢雄哉 송도를 바라보니 기세가 웅장한데  
 東北天磨萬騎來 동북쪽 천마산은 일만 말이 달려오는 듯  
 王氣前朝烟黯黯 전조의 왕기는 연기처럼 암담하여  
 行人落日水徘徊 저물녘 길손은 물처럼 배회하네<sup>41)</sup>

말 위에서 멀리 개성을 바라보며 지은 시이다. 예전 고려의 수도답게 기세는 웅장하고 산세는 말들이 내달리듯 거침이 없다. 하지만 화려했던 문명은 온데간데없고 연기처럼 암담하여 나그네는 울적한 마음에 이리저리 맴돈다. 젊을 시절 크게 文名을 떨쳤으나, 지금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떠도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와 부합하였기에, 개성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졌다. 이후로 개성을 벗어나기까지 橐駝橋, 南樓, 滿月臺에서 모두 이 같은 정취를 읊었고, 善竹橋에서 鄭夢周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sup>42)</sup>

개성에서 金川 가는 중간에 청석골이라 불리는 靑石洞이 있다. 땅이 험준하고 길이 협소한 요해처로, 임궫정의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예전 청나라 2대 황

41) 『石北集』 卷2 〈馬上望松都〉

42) 『石北集』 卷2 〈橐駝橋〉：“길손이 탁타교에서 말을 멈추고 보니, 천년토록 물은 흐르건만 인사는 적막하네. 송악으로 돌아가는 중은 멀리서 말하네, 석양빛 짙은 곳이 전조의 서울이라고. [行人駐馬橐駝橋, 流水千年事寂寥, 松岳歸僧遠相語, 夕陽多處是前朝.]”

『石北集』 卷2 〈南樓月夜〉：“지친 말로 변방 고을 가는 서생, 눈에 가득한 황혼에 옛 나라 시름겹네. 성곽은 인사 따라 변하지 않았건만, 영웅은 모두 물소리와 함께 흘러갔네. [書生倦馬向邊州, 滿目黃昏故國愁, 城郭不隨人事改, 英雄盡入水聲流.]”

『石北集』 卷2 〈滿月臺 其一〉：“산새가 어찌 전대의 슬픔 알고 우지지랴, 나무꾼 노래 절로 옛 도읍 때문에 애처롭네. 삼한의 세족은 모두 전조의 신하였는데, 이 땅의 인정에 암담한 마음 못 가누겠네. [山鳥豈因前代哭, 樵歌自以故都哀, 三韓世族皆王土, 此地人情黯未裁.]”

『石北集』 卷2 〈善竹橋〉：“세모에 슬픈 노래 부르며 서쪽으로 관문 나가니, 고려 옛 나라는 그저 청산만 남았네. 석양 속에 객은 아는 사람 없어서, 선죽교 앞에서 홀로 절하고 돌아가네. [歲暮悲歌西出關, 高麗舊國但青山, 斜陽過客無人識, 善竹橋前獨拜還.]”

제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곳을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金川三十里 금천까지 가려면 삼십 리  
 靑石一門開 청석동 동구 문이 활짝 열렸네  
 落日行人恐 해가 지면 길손들 두려워하니  
 往時胡騎來 예전에 오랑캐 기병 왔었지  
 關防眞有險 참으로 험난한 요새인데  
 將帥未聞才 재주 있는 장수 있지 않았네  
 鳥嶺誰曾守 조령은 누가 예전에 지켰던가  
 朝鮮自古哀 조선은 예로부터 애처로웠네<sup>43)</sup>

개성에서 금천으로 가려면 이곳 청석골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도적도 많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 지났던 곳이라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기를 두려워하였다. 이곳은 험난한 요새여서 이 길목을 잘 방어하였다면 홍타이지가 도성까지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훌륭한 장수가 없어 이곳을 내어 주는 바람에 결국 三田渡의 굴욕을 맛보았다. 신광수는 이곳이 마치 임진왜란 때의 鳥嶺과 지형으로나 상황으로나 흡사하다고 생각하였다. 조령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조가 의주로 蒙塵한 일이 발생하여 조선이 애처롭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곳으로 황해도 봉산군의 험준한 고개인 洞仙嶺이 있다. 이 고개에 설치한 관문을 洞仙關이라고 불렀는데, 황해도와 함경도를 잇는 중요한 관문인 동시에 군사적 요새였다. 신광수는 이곳을 지날 때 서글픈 감회를 드러냄과 동시에 조정의 신하들도 비판하였다.

金城塞自年年起 금성땅지의 관문은 본래 해마다 세웠건만  
 鐵騎胡能處處來 철기병의 오랑캐가 여기저기 쳐들어왔구나  
 今日腐儒空駐馬 오늘 불품없는 선비는 공연히 말을 멈추고

43) 『石北集』 卷2 〈靑石洞〉

廟堂籌策問誰裁 묘당의 책략을 누가 짜는지 묻노라

우리나라는 해마다 관문을 세워 방비를 튼튼히 하였지만, 청나라는 철기병으로 관문을 다 뚫고 쳐들어왔다. 이는 관문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조정의 신하들이 국가 정책을 운용하는 데 소홀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신광수는 당시까지 등용된 적이 없었고, 관서 유람을 다녀온 그해 겨울에야 처음으로 말직인 寧陵 參奉에 제수되었다. 신광수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 벼슬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 등용되면 잘 다스릴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벼슬에 대한 동경이 컸다. 대동강을 떠나면서 쓴 시에 “한평생 동국에서 포의 신세 부끄러워라.”<sup>44)</sup> 라고 한 것도 벼슬길에 올라 뜻을 펴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다. 훗날 寧越 府使가 되어 요역과 환곡에 대한 영월의 弊瘼을 조목조목 올려 조정의 정책을 비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sup>45)</sup>

선달에 李适의 난 때의 격전지인 瀋灘에 이르러서는 분노가 일어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萬馬疆藩胡氣黑 일만 말 강한 번진은 호기가 검고  
百年流水戰場寒 백 년의 유수에 전장이 시리구나  
關河志士他時憤 관하의 지사들 옛적에 분개하였으니  
雨雪邊州此歲關 눈 내리는 변방은 올해도 저무누나<sup>46)</sup>

疆藩은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 있었던 이괄을 가리킨다. 1624년 이괄은 寧邊에서 난리를 일으켜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탄에 이르렀는데, 이곳을 지키던 坡州 防禦使 李重老 등이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다. 신광수는 戰

44) 『石北集』 卷2 〈別瑊江〉：“百年東國布衣羞。”

45) 『石北集』 卷13 〈寧越弊瘼疏〉

46) 『石北集』 卷2 〈瀋灘〉

場이 된 이 강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분개가 일어 감회를 읊었다.

이렇게 신광수는 관서 유람에서 역사 유적을 보고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인생의 무상함과 분개의 마음을 드러내었고, 더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우국충정의 면을 나타내었다.

#### 4) 풍류 의식

풍류란 자연을 벗함, 멋있음, 韻致, 음악을 얹,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즐거움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신광수는 풍류의 맛과 멋을 알고 그 세계를 지극히 사랑한 시인이었다.<sup>47)</sup> 신광수의 시 세계를 다룰 때 풍류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sup>48)</sup>

天入關山大野低 하늘은 관산에 들고 큰 들판은 나직한데  
長亭漸近俱江西 패강 서쪽으로 장정이 점점 가까워지네  
依然畫裏杭州路 흡사 그림 속 항주 가는 길과 같아서  
不到聞鷄已眼迷 닭 울음소리 듣기도 전에 벌써 눈에 황홀하네<sup>49)</sup>

黃州에서 출발한 신광수는 中和를 거쳐 평양의 초입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평양을 바라보니 먼 변방에는 큰 들판이 하늘과 닿을 듯 나직하고, 패강의 서쪽으로 長亭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중국의 杭州 가는 길처럼 황홀하여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였다. 항주는 錢塘江과 西湖 등의 명

47) 이기현(1996), 144~145면.

48) 이가원(1959)은 艷體詩라는 3항목 안에, ‘關西의 傲游와 ‘白首風流’를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실었다. 이기현(1996)은 신광수의 시 세계를 6항목으로 나눈 것 중 세 번째에 ‘풍류 의식’을 실었다. 부영근(2004)은 『탐라록』의 시 세계를 3항목으로 나눈 것 중 첫 번째에 ‘풍류 의식의 구현’을 실었다. 이향배(2024)는 『여강록』의 시 세계를 4항목으로 나눈 것 중 네 번째에 ‘神交의 고아한 풍류’를 실었다. 이은주(2005)는 <관서악부>를 다루면서 ‘풍류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49) 『石北集』 卷2 <望平壤>

승지가 있어서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신광수는 평양을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로 표현하면서 중국의 金陵과 錢塘 같은 곳에 견주었다.<sup>50)</sup> 즉, 평양은 신광수에게 이전의 고독과 비애를 사라지게 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게 하는 전환점이 된 공간이었다.

長林十里畫難如 십 리 장림은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우니  
 樹裏江流曲曲虛 수풀 속 강물이 굽이굽이 맑아 텅 빈 듯  
 林盡樓臺應自見 숲이 끝나면 누대가 절로 보이련만  
 却憐林盡緩驅驢 되레 숲 끝날까 봐 나귀 천천히 모네<sup>51)</sup>

평양의 대동문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곳은 나무가 길게 뻗어 있는 長林이다. 길 좌우에 나무가 장막처럼 펼쳐져 있어 주변 풍경이 보이지 않다가 장림이 끝나는 곳에 대동강이 보인다. 이 장림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장림을 지나야 대동강 가의 누대가 보이는데 신광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계속 보지 못할까 봐 천천히 나귀를 몰고 간 것이다. 그만큼 평양의 풍경은 신광수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졌다.

練光亭에 이르러 劍舞를 추는 기녀를 보고는 이전의 자조 섞인 비애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풍류를 한껏 즐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靑鬢戰笠紫羅裳 푸른 갈기 진립에 자줏빛 비단 치마  
 第一西關劍舞娘 서관에서 제일가는 검무 기생이라  
 落日魚龍來極浦 해 질 무렵 어룡이 먼 포구로 올 듯  
 晴天風雨集虛堂 갠 하늘에 비바람이 빈집에 모일 듯  
 蛾眉顧盼能生氣 아름다운 여인이 돌아보니 생기가 돌고  
 珠袖翻回合斷腸 주옥 같은 소매 나부끼니 애간장 끊어지네  
 更下蘭舟歌一曲 다시 난주로 내려가 한 곡조 부르는데

50) 『石北集』 卷10 〈關西樂府 并序〉: “平壤, 箕子東明王之所都也。自古號佳麗擅國中。皇朝勅使如張芳洲、許海嶽、朱蘭嶼諸公, 或稱天下第一江山, 或稱如金陵、錢塘。”

51) 『石北集』 卷2 〈長林〉

水光山色遠蒼蒼 물빛과 산색이 멀리 창창하게 펼쳐졌네<sup>52)</sup>

武官이 쓰던 戰笠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검무를 추는 西道 제일의 기녀는 秋江月이다. 그녀가 춤을 추고 있으면 마치 석양에 물고기들이 먼 포구로 모여 들 듯, 맑은 하늘에 비바람이 몰아칠 듯 신비로우며, 그녀가 춤을 추다 잠시 돌아보면 생기가 돌다가, 소매를 나누끼면 간장이 녹을 듯 애처롭다. 정자에서 장소를 옮겨 작은 배로 내려가 노래 한 곡조 부를 때는 물빛과 산색이 푸른 빛으로 멀리까지 어우러져 황홀하기만 하다.

이런 그의 풍류는 成川의 降仙樓에서도 이어진다. 강선루는 成川의 客舍에 딸린 누각이다. 沸流江을 굽어보고 있고, 강 건너에는 巫山 열두 봉우리의 절경이 펼쳐져 關西八景의 하나로 꼽혔다.

秋水新生細縠紋 가을 물에 가는 비단 물결 새로 이는데  
 薜蘿飛雨近斜曛 석양 가까울 제 벽라 녕쿨에 비 날리네  
 英雄故國空聞笛 영웅 살던 옛 나라엔 공연히 피리 소리뿐  
 神女高樓只有雲 신녀 놀던 높은 누각엔 구름만 남았어라  
 白鳥雙雙隨棹去 흰 새는 쌍쌍이 배를 따라 날아가고  
 青山點點隔江分 푸른 산은 점점이 강에 막혀 나뉘었네  
 欄干坐到黃昏月 난간에 앉으니 황혼에 달이 떠오르는데  
 一遣天涯恨緒紛 천에서 분분한 시름 모두 씻어 보네<sup>53)</sup>

이 시는 2차 관서 유람 때 지은 것이다. 가을날 비류강에는 물결이 일렁거리고 석양녘에는 벽라 녕쿨에 비가 날린다. 고구려의 시조 東明王은 北扶餘에서 쫓겨 내려와 비류강 상류에 도읍하였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가 불던 피리 소리만 들리는 듯하며,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강선루에는 신선은 없고 구름만 남았다.<sup>54)</sup> 누각에서 바라보니, 흰 새들은 배를 따라 날아가고 푸

52) 『石北集』 卷2 〈練光亭 贈劍舞妓秋江月〉

53) 『石北集』 卷2 〈降仙樓〉

른 무산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나뉘었다. 이렇게 멋진 풍광을 마주한 난간에 앉아 달을 보면서 天涯의 시름을 모두 씻는다.

신광수는 강선루에서 배를 타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택했다. 평양에 도착하여 부벽루에서 義州 출신의 기녀 梨花春을 만났다.

關外年年春自回 관문 밖엔 해마다 봄이 절로 돌아오니  
梨花雪白爲誰開 흰 눈 같은 배꽃은 누구 위해 피는가  
驛亭時有江南客 역정에는 이따금 강남의 객이 있는데  
悵悵紅欄月色來 서글퍼라 붉은 난간에 달빛이 비쳐와<sup>55)</sup>

해마다 봄이 돌아오면 배꽃은 어김없이 핀다. 그런데 기녀 梨花春은 누구 위해 꽃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화춘’이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1, 2구의 14자 시구를 자연스럽게 완성하였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은 강남에서 온 손님으로 바로 작자 자신이다. 난간에 달빛이 비치는 저녁, 연회를 파할 때가 되자 작자는 이런 즐거움을 더는 만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글퍼한다.

이 시는 이화춘에게 준 4수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신광수는 이 외 3편의 시에서도 모두 이화춘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今日玉人相別處 오늘 미인과 작별하는 곳  
普通門外更青山 보통문 밖은 다시 푸른 산이네<sup>56)</sup>

浮碧樓中歌舞地 부벽루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던 곳  
曉風殘月憶應迷 새벽바람 남은 달빛에 추억이 희미하리<sup>57)</sup>

54) 이 부분은 弄玉과 簫史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춘추 시대 秦穆公의 딸 농옥이 피리를 잘 부는 소사에게 시집갔는데, 둘이서 몇 년 동안 鳳臺에 머물다가 어느 날 홀연히 함께 봉황을 타고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55) 『石北集』 卷2 〈贈義州妓梨花春 其一〉

56) 『石北集』 卷2 〈贈義州妓梨花春 其二〉

57) 『石北集』 卷2 〈贈義州妓梨花春 其三〉

何日紫騮游塞下 언제나 자류마 타고 관세에서 놀면서  
 戍樓歌吹臥看星 수루의 풍악 소리 들으며 누워 별을 볼까<sup>58)</sup>

신광수가 여유 있는 士大夫였거나 평양의 관리가 되어 이곳을 유람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선비이자 布衣의 신분으로 얻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가야 했기에 아쉬움이 더 컸던 것이다.

신광수의 풍류는 楚襄王과 巫山神女와의 사랑 이야기인 雲雨之情을 인용한 고사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운우지정을 나눈 대상은 陽臺春이라는 기녀이다.

陽臺雲雨涇江春 양대에서 운우지정 나눈 쾌강의 봄날  
 夢裏襄王是別人 꿈속의 양왕은 그대와 이별하는 나라네  
 只爲西關經歲住 서관에서 한 해 걸쳐 머물렀을 뿐인데  
 別時臨水欲傷神 이별할 제 물가에서 마음 상하려 하네<sup>59)</sup>

이 시는 1차 유람 때 평양의 부벽루에서 지은 시로 추정된다. 기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는 이 이별이 너무도 아쉬웠다. 신광수는 1760년 11월에 관서로 출발하여 1761년 1월에 평양을 떠난다. 한 해 걸쳐 한두 달 머물렀을 뿐인데,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다. 그만큼 기녀와의 사랑이 달콤하고 즐거웠다.

이처럼 평양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명승지이고, 화려한 배와 강가 누각에서 아리따운 여인과 풍악을 울리며 오랫동안 머물면서 실컷 술에 취하는 향락의 공간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한껏 풍류를 만끽하며 더 즐기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런 그의 풍류는 14년 후 蔡濟恭이 평안 감사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를 송별하는 〈관서악부〉에서 마음껏 발산하는 토대가 되었다.<sup>60)</sup>

처음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울적한 심정으로 길을 나섰지만, 막상 말

58) 『石北集』 卷2 〈贈義州妓梨花春 其四〉

59) 『石北集』 卷2 〈又贈陽臺春〉

60) 『石北集』 卷10에 실린 〈關西樂府〉는 신광수의 대표작으로, 1774년 平壤 監司로 부임하는 체제공을 위해 지은 108수의 장편 시이다.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화려한 행차와 연회 장면 등이 많이 나와 향락적인 이미지가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로만 듣던 평양에 오니 그런 감정은 싹 사라지고 그 명승과 향락에 취하였다. 게다가 당시 평양에서 서도 시창으로 불리던 〈關山戎馬〉의 원작자가 신광수로 알려지면서 그 지역 기녀들과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가무를 즐길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어딜 가든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평양은 당시 비애감에 젖어 있던 신광수를 위로하고 文人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아준 특별한 공간이었다.<sup>61)</sup>

그러므로 『서관록』은 평양 이전의 시와 평양 이후의 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평양 이전의 시가 비애와 고독 등의 어두운 정서가 주조를 이루었다면, 평양 이후의 시는 슬픔을 잊고 풍류를 즐기는 밝은 정서가 주조를 이룬다. 만약 신광수가 평양에서 이런 풍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관서악부〉에서 향락과 유희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체제공에게 〈관서악부〉를 읽으며 향락에 빠지지 말라고도 경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sup>62)</sup> 아마도 布衣 신세였던 자신도 평양의 유희에 취하였는데, 고귀한 신분의 체제공은 그러한 유희가 훨씬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 4. 결론

지금까지 『서관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관록』은 신광수가 出仕하기 전인 1760년과 1761년 두 차례 걸쳐 관서 지방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시집이다.

신광수는 뛰어난 재주가 있어 젊었을 때 文名을 떨쳤으나, 時運이 맞지 않아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생활 자금을 얻기 위해 관서 지방으로 유람을

61) 권순희, 「〈관서악부(關西樂府)〉와 평양의 문화도상」, 『석북집』 원역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2025, 76~81면.

62) 신광수는 〈關西樂府〉에서, 염주를 끊임없이 돌리며 자신을 경계하는 불가의 수행 방법처럼, 〈관서악부〉 108수를 늘 염주 돌리듯이 읽으며 性情을 함몰시키지 말라고 체제공에게 경계하였다.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서관록』을 지은 이유임을 2장 ‘배경’에서 밝혔다. 그리고 ‘구성’에서는 『서관록』에 실린 총 70여 수의 시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재구성하여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유람하였으며, 어떤 시들을 지었는지 세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의 배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의 편차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 『서관록』에 수록된 시를 주제에 따라 네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단순한 유람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떠난 유람에 가까웠던 만큼, 그의 시에서 고독과 비애를 느낄 수 있었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여서, 여유롭게 구경하지 못하고 눈이 오건 밤이건 서둘러 길을 떠나야 했다. 게다가 초라한 행색 때문에 문전 박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그의 쓸쓸하고 서글픈 심정이 『서관록』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둘째, 가난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시에 짙게 묻어 있었다. 특히 떠나기 전날 아우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은 여러 편의 시와 가족의 구성원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慈秀山 달밤에 지은 6편의 시, 그리고 上元日에 海州에서 보름달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한 작품들은 신광수의 진솔하고 애뜻한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었다.

셋째, 역사 유적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감회를 읊었다. 개성에서는 고려 시대의 유적지가 황폐해진 모습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었고, 淸나라의 침입 경로인 청석골과 洞仙關에서는 당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조정을 비판하였으며, 이괄의 난 때의 격전지인 瀋灘에서는 분개의 마음을 표출하였다.

넷째, 그의 풍류는 특히 평양과 성천에 있을 때 두드러졌다. 평양은 화려함으로 대변되는 공간이고, 성천은 풍광이 멋진 곳이다. 그래서 평양에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으며, 부벽루·연광정·강선루 등에서 풍류를 한껏 즐기며 더 놀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이런 그의 풍류는 훗날 체제공이 평안 감사로 갈 때 지어 준 〈관서악부〉에서 마음껏 발산되었다.

이렇게 『서관록』의 시 세계를 여정에서 느낀 고독과 비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역사에 대한 회고, 풍류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서관록』에 대해, 자신의 소외감이나 자기 연민, 또는 처량한 신세가 시 내용의 주조를 이룬다고 기존 연구에서 말하였다. 하지만 이는 처음 길을 떠날 때와 마지막 집에 돌아갈 때 국한될 뿐, 평양에 도착한 뒤의 『서관록』 중반부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만약 『서관록』에 고독과 비애 등의 정서가 두드러질 뿐 그의 풍류가 없었다면 <관서악부>의 향락과 유흥의 이미지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서관록』의 풍류 의식이 <관서악부>의 화려한 이미지를 한껏 표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는 『서관록』과 <관서악부> 작품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세히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 申光洙, 『석북집』, 한국문집총간 231집.  
한국한문학회연구회,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 신석초, 『石北詩集 紫霞詩集』, 명문당, 2003.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서, 1996.
- 권경록, 「18세기 지식인의 공간인식과 심상지리-申光洙의 『驪江錄』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63~102면.
- 박영주, 「회재불우의 풍류 시인 석북 신광수」, 『오늘의 가사문학』 34집, 고요아침, 2022, 45~64면.
- 박용만, 「신광수(申光洙)의 『탐라록(耽羅錄)』에 나타난 제주에 대한 인식과 정서, 『탐라문화』 66호, 탐라문화연구원, 2021, 77~109면.
- 부영근,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탐라록(耽羅錄)』 고찰(考察)」, 『영주어문학회』 8집, 영주어문, 2004, 45~62면.
- 신장섭, 「〈관서악부(關西樂府)〉를 통해 본 석북(石北)의 역사 인식 고찰」, 『어문연구』 34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99~423면.
- \_\_\_\_\_, 「石北 申光洙의 〈關西樂府〉 규제 고찰(1)」, 『우리문학연구』 19집, 우리문학회, 2006, 119~145면.
- \_\_\_\_\_, 「出仕 전까지 石北의 삶과 시의 면모」, 『어문논집』 41집, 중앙어문학회, 2009, 190면.
- 이가원, 「석북문학연구」, 『동방학지』 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153면.
- 이은주, 「申光洙의 〈關西樂府〉 小考-“風流”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3집, 한국한시학회, 2005, 357~385면.
- 이향배, 「石北 申光洙의 『驪江錄』 研究」, 『한문학논집』 67집, 근역한문학회, 2004, 73~99면.
- 장유승, 「石北 申光洙家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회』 78집, 대동한문학, 2024, 227면.

| Abstract |

## A Study of Seogwan-rok by Seokbuk Shin Gwang-su

Choi, E-ho

Chosun Univ. Researcher

This paper examines the poetic world of Seogwan-rok (西關錄), authored by Shin Gwang-su. Seogwan-rok is a collection of poems documenting the observations and sentiments from his two journeys to the Gwanseo region in 1760 and 1761. These travels were undertaken primarily to alleviate financial hardship, and the resulting works are preserved in the second volume of his collected writings, Seokbuk-jip (石北集).

As a literatus of the Namin (Southerners) faction during a period when the Noron (Old Doctrine) faction dominated the political landscape, Shin lived in persistent poverty despite achieving literary renown in his youth. Poverty was an inseparable condition of his existence, and his literary output was largely shaped through a close relationship with this economic reality.

Seogwan-rok is a product of the poet's struggle to overcome poverty, providing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fatigue of daily life and the self-sorrow of a fallen yangban (aristocrat). Since his journey was closer to a wandering for survival than a leisurely excursion, the longing for his family and hometown is expressed

with profound emotional depth. Furthermore, the tragic narratives of the historical sites he visited mirrored the poet's own desolate situation, leading these emotions to be deeply projected into his work.

In contrast, upon arriving in Pyongyang, the previous sentiments of sorrow and solitude vanish, replaced by a bright and positive tone centered on the enjoyment of arts and *pungnyu* (poetic flair). This shift occurred because Pyongyang was not merely a site of scenic beauty and pleasure, but a space that restored his self-esteem as a man of letters. This experience and his sense of *pungnyu* were later fully realized in *Gwanseo-akbu* (關西樂府), which he composed for Chae Je-gong.

**Key words** : Shin Gwang-su, Seogwan-rok, Pungnyu (Poetic Flair), Sorrow, Gwanseo-akbu